

風水地理說과 住宅 設計(2)

朴時翼

工學博士, 日新종합건축사사무소

Report / Feng-Shui Theory and Architectural Design
by Park, Se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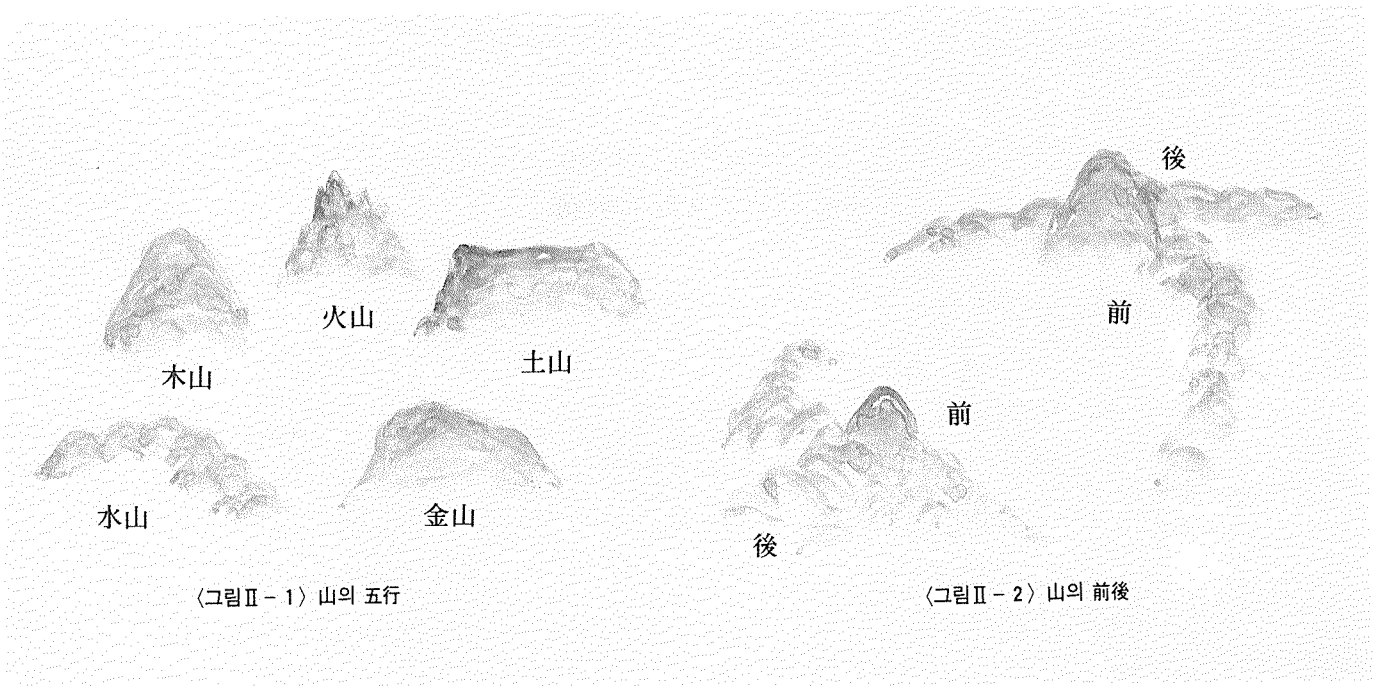
1. 陰宅과 陽宅

풍수지리설은 오랜기간을 걸쳐서 현재까지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수지리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은 크게 陰宅과 陽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陰宅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시신을 땅에 묻는 자리 즉, 墓地를 말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설이 墓地의 선정과정의 기본이론으로 적용되는 원인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땅에는 각각의 지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墓地는 그 地勢에 따라서 生氣가 많이 모여있는 곳과 또는 生氣가 부족한 곳으로 분류되어, 가급적이면 生氣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상적인 墓地가 된다. 그리하여 가령 地下에 물이 흐르거나 또는 그속에 물이 고여있는 묘지는 전혀 生氣가 없는 곳으로 이러한 땅은 墓地로서는 매우 부적당한 것이다. 墓地로서 生氣가 없는 땅은 비단 위에서와 같이 물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가 시신을 감싸고 있게 되는 곳이나, 뱀 기타 여러가지 生物들이 들어가는 곳, 또는 바람이 통행하는 곳 등 매우 여러가지의

좋지않은 현상이 발생하여 시신의 부패과정이 까맣게되거나 추악하게 변화되는 곳이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에서 明堂 또는 穴이라고 말하는 이상적인 墓地는 그 속에 물이 고이거나 또는 전혀 흐르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나 뱀 등의 生物은 물론 바람도 없는 곳으로 그 내부가 매우 안정되고 따뜻한 기운이 항상 시신을 감싸고 있어서 시신의 부패과정도 매우 깨끗하며 노랑게 변화되는 위치를 말한다.

그런데 땅의 위치에 따라서 그 내부의 성격이 이와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地中の 生氣 有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 누구나 죽게 마련이어서, 죽은 사람의 앞에서는 故人의 德을 칭송하고 경배하며 그의 시신이 편안하게 잠들어 쉴수 있게 하는 마음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故人을 장사지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故人이 묻힐 장소에도 신경을 쓰게 마련이며, 따라서 가급적이면 좋은 터를 구하여 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故人이 편안하게 쉬는 곳 즉, 墓地는 바로 죽은 者의 집(宅)이 되어 이곳을 일반적으로 陰宅이라 하며 이 陰宅의 위치선정에는



〈그림II-1〉 山の五行

〈그림II-2〉 山の前後

풍수지리설의 이론을 적용하게 된다. (陰宅에 대한 자세한 이론해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와같이 풍수지리설은 墓地 즉 陰宅의 위치선정에 적용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택이나 건물 즉 陽宅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그 이론을 면밀히 분석하면 현대의 주택설계에도 많은 응용이 가능하여 이상적인 건축공간 창조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것은 풍수지리설의 이론이 비단 땅 속에 흐르는 기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표면에 흐르는 空氣에 대하여서도 역시 生氣의 理論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생활은 모두가 地表面 위에서 이루어 지게 되는 까닭으로 그 생활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地上에 분포되어 있는 자연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까닭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生氣도 역시 地中보다는 地上에서 직접적으로 찾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활이 평화롭고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환영에 있어서 生氣가 많이 모여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이 곳을 주거공간으로 정하여 생활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된 生氣를 보다 많이 취득할 수 있어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生氣가 많은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는 地勢를 살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크게 地勢의 해석에 대한 이론과 음양오행설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地勢에 대한 이론은 地勢를 구성하는 지리적인 조건으로서 山, 水 및 이들의 方位로 구별하게 되는데 이들 山, 水 및 方位를 지세를 구성하는 三要素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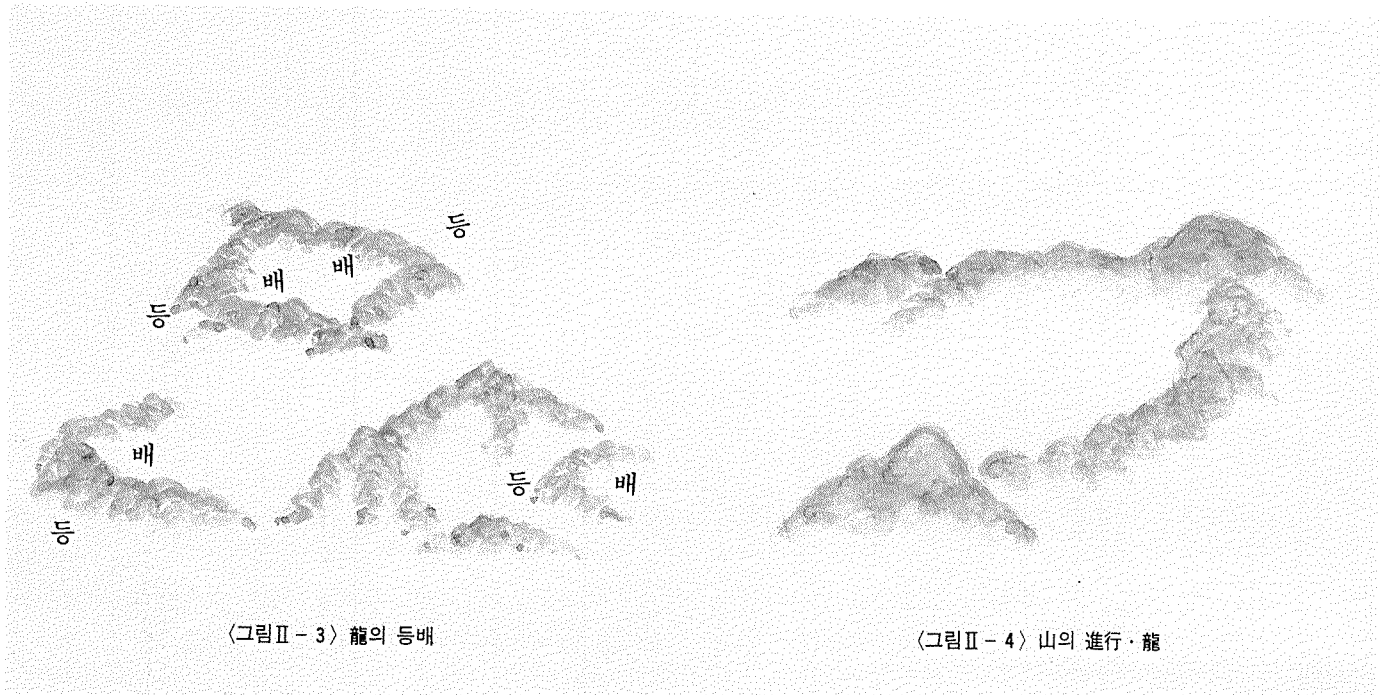
2. 山の 형태와 영향

풍수지리설에 「山淸人秀 山濁人遇 自然之理」 즉 「산이 좋으면 우수한 인제가 나고 산이 나쁘면 우매한 인간이 나는 것은 自然의 이치다」라고 말하여 山과 인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地勢와 人間과의 관계는 마치 인간의 출생이 그의 父母와 祖宗들의 영향으로 태어나게 되고 성장되는 것과 같이 自然의 生氣가 인간을 낳고 성장시키는 과정과 같은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에서 지세를 살피는 과정은 그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山, 水 및 방위등의 각각의 형태와 이들 상호 조화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들 지세의 三要素중에서 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한 지세의 분석은 山의 성격파악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여기에 山이라고 함은 一般的으로 부르는 높은 산을 말함은 물론이지만 높은 山이 없는 평탄한 대지에서는 평지보다 조금만 높아도(약 3cm) 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地上에는 각 지역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山이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山이 서로 모양이나 크기 및 土質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山의 영향도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들 많은 山들의 공통적인 형태를 분류하여 이에 따르는 성격을 분석한다.

3. 五行山の 구별과吉凶

풍수지리설의 이론으로 각 山의 특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五行山에 의한 분류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도 이 五行山에 관한 이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五行山은 山의 형태를 음양오행설의 五行(水 火 木 金 土)으로 분류한 水山, 火山, 木山, 金山 및 土山을



〈그림II-3〉 龍의 등배

〈그림II-4〉 山의 進行·龍

말하며 冊에 따라서는 水星, 火星, 木星, 金星 및 土星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天上의 五星으로부터 그 형상이 地上에 나타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五行山의 각각의 설명은 여러 冊子들의 내용에도 거의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이들의 내용을 종합해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가. 水山 : 山의 능선의 진행이 마치 물이 굽이쳐 흐르는 형태를 이룬 山을 水山이라고 부른다.

나. 火山 : 山의 형태가 마치 불꽃과 같이 뽀족뽀족한 山을 火山이라고 한다.

다. 木山 : 山의 형태가 붓의 끝과 같이 뽀족한 山을 木山이라고 말한다.

라. 金山 : 山의 형태가 둥근 모양의 山을 말한다.

마. 土山 : 山의 정상부가 평탄한 모양을 이룬 山을 土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山의 형태에 의한 五行의 분류의 대표적인 例로서 서울의 관악산을 말할수 있다. 즉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은 火山인 까닭에 한양에 빈번한 화재를 유발시키게 됨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火氣를 억제하는 물의 동물인 해태의 석상을 광화문에 설치하여 관악산의 火氣를 제압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山의 형태를 五行으로 분류한 목적은 그 山의 형태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 그의 吉凶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山의 吉凶의 구별은 山의 형태가 밝고 아름답고 균형이 있으면 吉하고 이와 반면에 그 형태가 추하고 균형이 잡히지 못한것은 凶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冊子에 따라서는 五行山의 각각의 山의 형태에 따른 吉凶을 별도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길흉의 판단 기준은 山의 형태상의 美醜 또는 살점의 정도 등의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實例는 「韓國의 風水思想」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五行山의 형태에 따르는 吉凶의 구별을 「五星의 淸·濁·凶의 三格에 의하여 그 吉凶을 論하는 바 淸이란 星辰이 수려하고 광채가 나는 것이요, 濁이란 星辰이 살찌고 두텁고 단정하고 무거운 것이며, 凶이란 星辰이 추악하고 거칠고 殺을 띤 것을 말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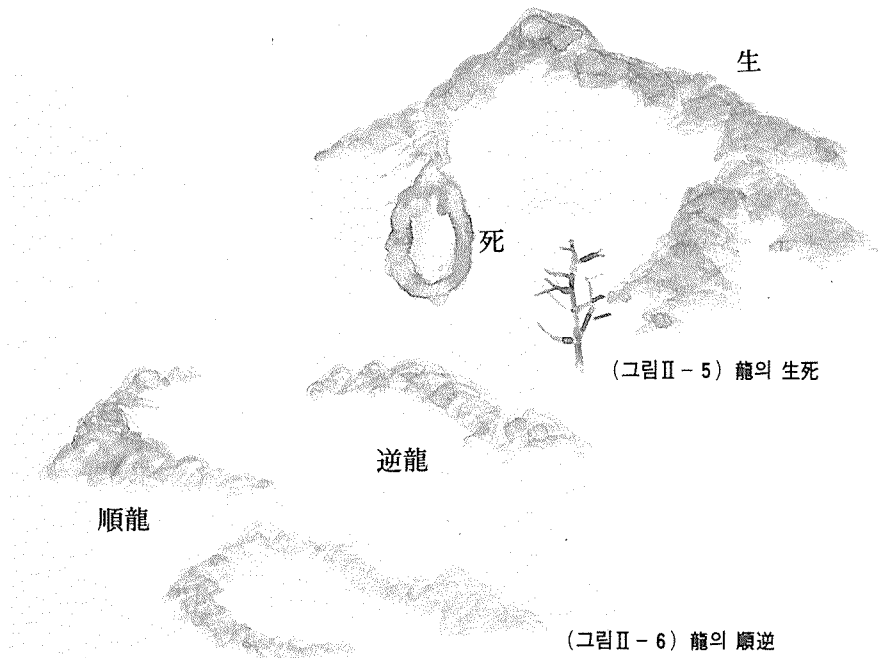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五星의 淸·濁·凶의 三格에 의한 吉凶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각산의 형태에 따른 吉凶의 판단은 어떤 물리적인 수치의 기준보다는 관측자의 경험에 의한 판단에 좌우되는 관계로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현지 답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상에 언급된 山의 형태에 따르는 五行의 구분의 이론들을 참조하여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山들의 형태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본다.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은 그 정상부가 뽀족뽀족하여 그 형태가 마치 불꽃과 같으므로 火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며 서울의 진산인 북악산은 그 형태가 단정하게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어서 五行으로 분석하면 木山에 해당된다. 이러한 木山은 그 형태로서는 마치 붓의 뽀족한 끝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풍수지리설의 이론으로는 「文筆峰」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의 진산인 북악산은 木山인 동시에 그 형태나 규모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文筆峰인 것이다. 이러한 文筆峰인 북악산의 영향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學者와 文人이 배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곳에서 배출된 文人이나 지식인들이 서울로



모여들게되어 文化의 中心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많은 學校가 오래전부터 설립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밀집하게 되는 것도 모두 이 북악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은 文筆峰의 영향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文筆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되어 각종의 언론인, 관료, 지식인, 종교인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도 그 원인은 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되는 山이 이 文筆峰인 것에도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진산이며 문필봉인 북악산은 그 형태나 규모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그 형태는 세계적으로 어느 山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지식인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두뇌를 소유한 인물로서 그 자질이 훌륭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외국에 진출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는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에서도 그 實例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부족한 원인은 그동안 한국의 사회가 잦은 당파싸움과 질투나 시기심으로 우수한 자질을 소유한

인재가 그 뜻을 펴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지나친 사대주의 사상에 의하여 자신의 독특한 천부의 재질을 발견, 개발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문화를 뒤따라가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고질적인 취약점만 수정된다면 한국의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북악산의 형태와 같이 뚜렷할 것이 확실된다.

서울의 북악산과 비슷한 형태의 文筆峰은 그 이외에 여러곳에 있으나 그중에 하나로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文筆峰도 대표적인 木山의 하나라 하겠다.

강릉시의 남쪽 가까이에 위치한 이 文筆峰은 강릉시내에서는 매우 가깝게 보이고 있는데 이 文筆峰의 영향에 의하여 강릉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文人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옛적에 이곳에 부임은 한금이라는 원님은 이 지방의 많은 文人들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서지 않게되자 이 文筆峰을 사람을 동원하여 3尺를 깎아내려서 이곳에 文人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던 기록도 있다.

경복궁의 북쪽에 위치한 북악산이 木山인 반면에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는데 이 인왕산은 대표적인 金山의 형태를 갖고있다. 이 인왕산은

등근형태가 우람하고 힘차서 예로부터 王氣가 서려 있다고 하였으며 이 인왕산 밑에서는 세종대왕을 비롯한 여러명의 왕이 태어났다. 최초로 무학대사가 한양터를 고를 때에 이 인왕산을 진산으로 왕궁을 배치할 것을 주장한 것도 모두 이 산의 王氣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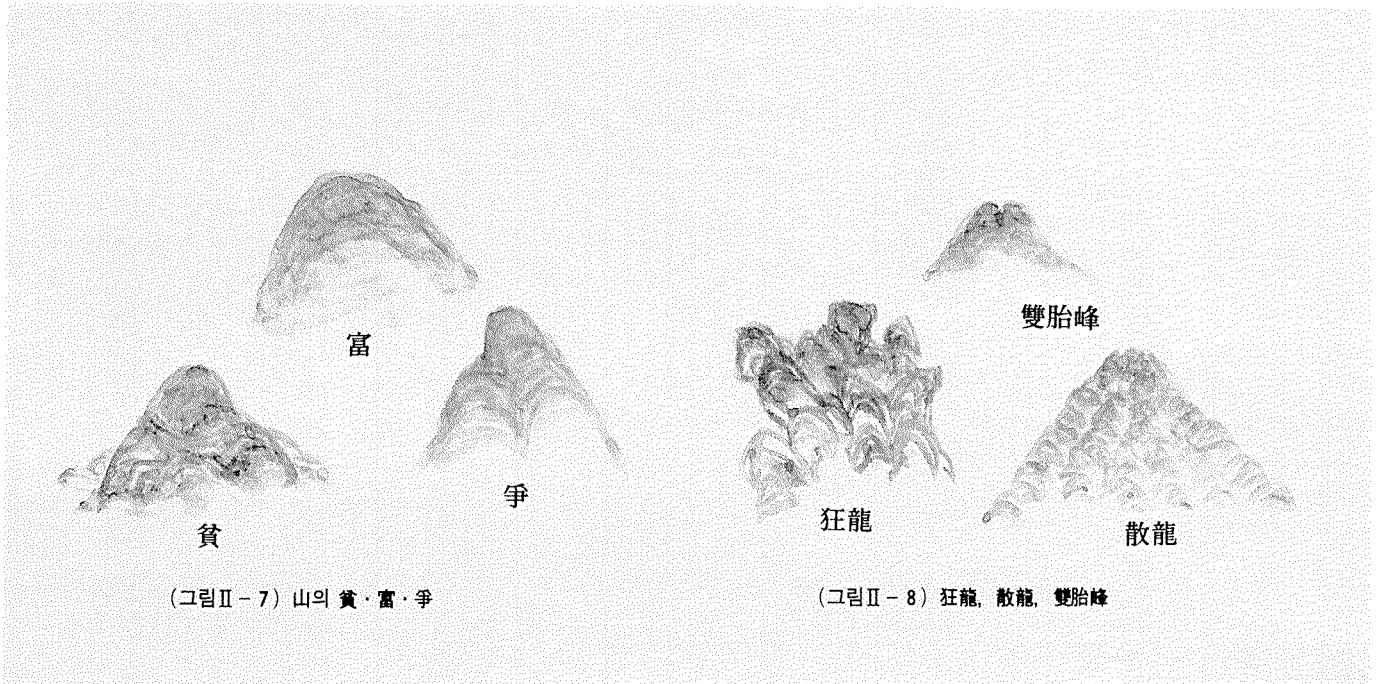
이상에 열거한 몇가지의 예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山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그곳의 지세를 살펴서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山의 형태를 五行에 의하여 분류하는 목적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산의 전후와 등배

풍수지리설에서는 山을 龍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韓松溪의 말과 같이 山의 變態는, 千形萬象으로 혹은 크고 작고(大小) 일어나고(起), 엎드리고(伏), 거슬리고(逆), 順하며, 혹은 숨고(隱), 나타나(現出) 있어 支龍의 體段이 平常치 않아 지적간이라도 움김에 따라 判異한 고로 이러한 形態를 龍의 變化와 흡사하다고 해서 龍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龍이라고 함은 山을 포함하여 山의 능선과 줄기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일정한 단독의 산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主山」, 「案山」等 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山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山”이라고 부르며 능선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龍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山은 그 형태의 변화가 많은 까닭에 동일한 山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그 형태도 다르다. 그러므로 무릇 크고작은 山嶺과 山은 다 등(背)과 배(面)가 있듯이 땅에도 그러하니 모름지기 자상하게 알아야 땅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크고작은 山嶺과 山은 다 背, 面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背, 面이라는 말은 山 또는 龍의 前面과 後面 즉 背의 兩面的 구별을 말한다. 그런데 山에 있어서 이러한



(그림II-7) 山의 貧·富·爭

(그림II-8) 狂龍, 散龍, 雙胎峰

前·後面의 구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창조 씨는 「地形上 龍의 止處란 바로 山의 連峯이 그 흐름을 다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바로 山地와 平野部의 접촉지점이 될 수 있어 해석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眞穴·明堂이란 山脈이 한창 세력을 펼치는 行龍 中에 있는 것이 아니라 山勢가 다하여 그치는 곳, 바로 平野에 접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으로 聚落의 立地중 긍정적 측면에 들 수 있는 用例이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山의 面에 따라서 明堂이 구성의 가능성이 좌우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山의 이러한 구별에 대하여 「人子須知」에 「背·面은 山龍의 有情과 無情의 區分인 것이다. 面이 열린 곳은 自然히 光彩가 나고 齊整하며 빼어나고 아름다워 보기가 좋으니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情이 있으니 이러한 곳에서는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서 山의 등(背) 또는 배(面)에 따르는 형태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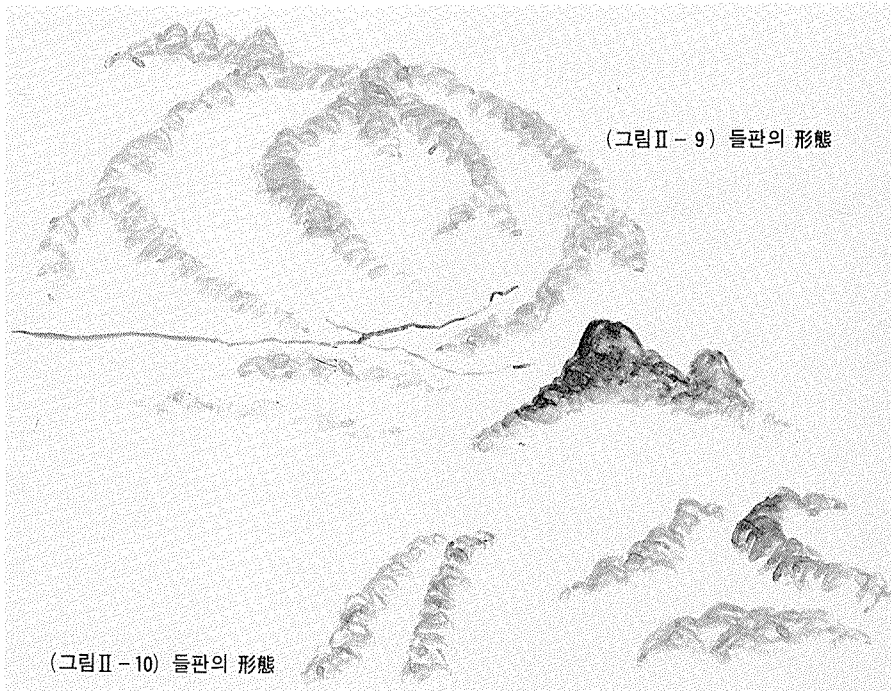
이와같이 山의 前後 또는 등, 배(背, 面)를 구별하는 목적은 역시 生氣를 찾기 위함이다. 즉 生氣는 山의 前面에 모여서 後面에는 결코 生氣가 부족한 위치가 되어 생기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山의 前面을 선택하여야 되는 까닭에 지세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山의 前·後面의 구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山의 등과 배의 구별은 祖山에도 있고 평지룡에도 있고, 혈에도 있어서 거의 모든 山은 이 등과 배의 형태적 구별을 갖고 있으므로 지세를 구성하는 主山 뿐만아니라 主山의 주위에 있는 靑龍·白虎 및 案山等の 모든 山에도 구별되기 때문에 지세를 분석하는데 이들 주변 山들의 등배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할수 있어야 그 지역의 生氣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지세의 조건은 主山과 주변의 山들이 모두 明堂을 향하여 面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明堂寶鑑」에도 「지리는 人事와 비슷하므로 나를 향하는 자는 서로 사귀는 뜻이 있고 나를 등지는 자는 반드시 싫어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 상대방이 君臣과 같고, 사랑함이 부부와 같고, 우애함이 형제와 같은 것은 나를 향하는 情이지만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는 것은 나를 등지고 돌아보지 않으니 無情이다」라고 하여서 山의 면하고 등진 관계가 人事와 같음을 지적하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山의 등 또는 배의 구별이 지세의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실제의 답사에서 山의 등 또는 배의 구별은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의 등과 배의 이론등이 풍수지리설의 실제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龍의 구별

풍수지리설의 목적은 生氣의 취득에 있는데 生氣는 生龍에서만 흐르며 死龍에서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死龍은 풍수지리설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龍의 生死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朝鮮의 風水」에 龍의 生死에 대하여 「山은 그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하여도 生氣가 흐르는 脈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도 마른가지가 있어서 열핏 보기에는 생가지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그 가지는 절대로 꽃이나 과일을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산에 있어서도 형태는 갖추고 있어도 生氣가 없어서 人生에 發福 시키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山을 死龍 또는 僞龍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龍의 生 또는 死에



(그림II-9) 들판의 形態

(그림II-10) 들판의 形態

依하여 生龍과 死龍의 구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生氣를 찾기 위한 地勢의 분석에 있어서 龍의 生·死의 구별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龍의 生死에 대하여 「朝鮮의 風水」에는 「모든 萬物의 生死는 陰陽五行의 생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生氣가 充溢할 때에는 生하며 生氣 衰減한 때에는 死한다. 그러므로 生한 것은 伸縮·屈曲 및 活動하며 조금도 쉬지 않아서 항상 움직임(動)그의 本質로 한다. 그러나 죽은 것은 전혀 硬直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屈曲活動이 없이 絶對의 靜을 本質로 하고 있다」라고 하여 山의 형태와 動과 靜의 구별로서 龍의 生·死를 구별함과 동시에 生氣의 有無도 구별하게 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다. 이와같이 龍은 生氣의 有無에 의하여 生龍과 死龍이 구별되어 이러한 구별 이외에도 生氣의 強弱이나 善惡 등의 구별이 있어서 이러한 용들의 형태를 12가지의 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龍의 분류를 冊에 따라서는 「龍勢12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生龍·死龍·強龍·弱龍·順龍·逆龍·進龍·退龍·福龍·祛龍·病龍 및 殺龍 등을 말한다. 이들 12格 중에서 생룡·강룡·순룡·진룡·복룡의

五格은 吉하지만 사룡·약룡·역룡·퇴룡·접룡·병룡·살룡 등의 七格은 흉한 것이다」라고 하여 용의 형태를 구별하였고 冊字에 따라서는 이와는 다르게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의 차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村山智順」은 生龍은 子孫이 長壽하며 死龍은 死喪이 不絶이라고 하여 吉·凶의 서로 다른 결과를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陰宅에 있어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임에 비하여 陽宅地로서의 이러한 山의 生死에 의한 영향의 결과는 음택의 경우에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吉凶의 근본적인 방향은 같다. 이와같이 이유는 陽宅은 地上의 形勢에 따르는 氣를 陰宅 보다도 오히려 더욱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山의 형태의 파악에 있어서 이러한 生·死·病·強·弱·順·逆·等の 정확한 구별의 능력은 高度의 수양과 수련의 연마 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분야의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6. 산의 형태적 구분

풍수지리설의 목적이 生氣의 취득에

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이 生氣는 自然의 山의 형태에 따라서 그종류가 다르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山에는 生氣가 흐르는 山도 있으며 흐르지 않는 산도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各個人에 따라서 그 天賦의 性品이 善惡과 多少에 의한 것과 같이 山에 있어서도 그 賦性은 千差萬別이어서 或은 福을 전달하기도 하며 或은 禍를 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山의 賦性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山의 형태를 구별하는데 앞에서의 五行的 분류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구분이 있다. 「조선의 풍수」에는 山의 형태를 九星正體 즉 貪狼星·巨文星·祿存星·文曲星·廉貞星·武曲星·破軍星·左輔星 및 右弼星 등의 北斗七星의 명칭을 위주로 구분한 방법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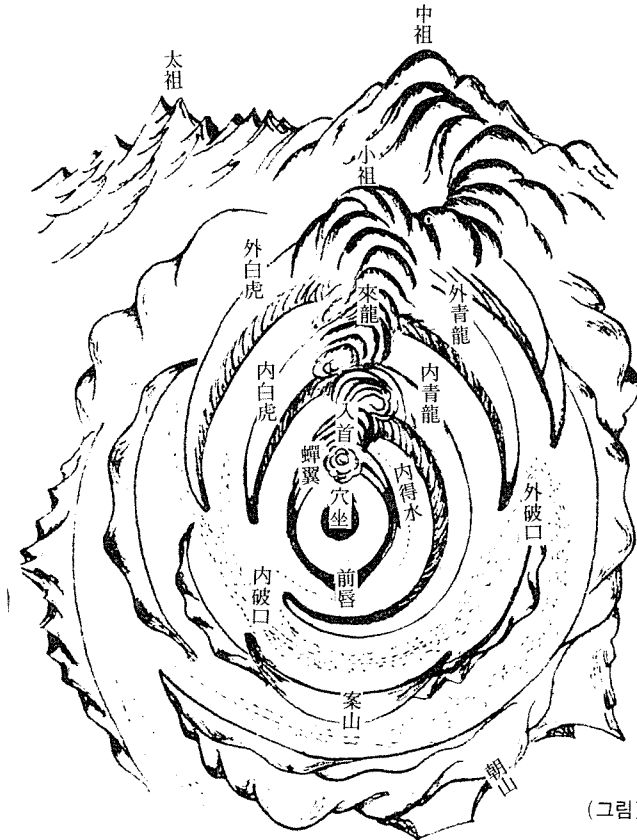
이외에도 五星의 類形으로써 貴人·太陽·將軍·仙人舞袖·武士·仙人·金匱·天馬·王帶 등 수많은 명칭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山이 위치한 方位에 따라서 八卦의 명칭을 붙여서 坎山·艮山·震山·巽山·離山·坤山·兌山 및 乾山 등으로 구별한 것도 있다.

이와같이 山의 형태에 따르는 구분은 冊에 따라서 수없이 많이 있어서 일반인이나 이 계통의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최창조 著 「한국의 풍수사상」에도 「五星은 正格이고 九星은 그의 결가지인 變格이기 때문에 術士에 따라서는 九曜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여 명칭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의 분류 방법은 현지에서 지세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이론들을 종합하면 산의 형태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의 정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가. 山의 主從

山의 형태에 따르는 성격의 분류에 대한 방법은 이분야의 冊子들에 따라서도 多樣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분류방법을



(그림 II - 11) 明山圖

현지답사의 경험을 통하여 분석하면 그중에서 몇가지의 대표적인 성격을 추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山의 主·從에 의한 형태의 분류가 山의 대표적인 성격 해석 방법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山의 主 또는 從에 관한 분류 방법은 기존의 문헌들 속에서도 이러한 분류 방법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기록이 몇가지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문헌은 白雲起·大韓曆法研究所 編著 明堂寶鑑에 龍의 형태에 관한 설명중에 이를 뒷받침하는 開帳과 穿心 正龍과 傍龍 전호(纏護) 賓主 및 奴從 등의 구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나타난 설명으로 山의 主從을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開帳과 穿心: 「開帳이란 장막을 연다는 뜻으로 새가 날개를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산이 좌우로 펼쳐 나간 모양을 말하며 穿心の 山勢에서 開帳은 穿心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穿心은 主가 되며 開帳은 從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正龍과 傍龍: 「正龍은 脈이 正氣를 받아 나가고 그 곁으로 여러 山이 朝貢하되 에워싸서 포위하고, 용이 중앙에 위치한 용을 말하며 傍龍은

맥이 편벽되게 기울어진 것으로 정룡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正龍은 무리 닭 중에 있는 봉황과 같이 자연히 우리 가운데 빼어나고 뛰어난 山을 말한다.」 이와 같이 正龍과 傍龍의 구별에서 正龍은 主, 傍龍은 從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호(纏護): 「전호는 엮어 보호한다는 뜻으로 용을 옹위하고 보호하는 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호의 山은 從의 山으로 구별할 수 있다. 賓主: 「빈주란 주인과 손이라는 뜻으로 龍에도 主人과 賓客이 있는 것이다」라고 山에 賓主를 구별하게 되는 것과 같이 主從으로도 구별하게 된다. 奴從: 「노종이란 종처럼 쫓는다는 뜻으로 즉 주룡을 엮어 보호하고, 맞이하고 보내고 조종하는 모든 山을 말한다」라고 구별한 바와 같이 이러한 山은 역시 從으로 구별하게 된다. 이와같이 山에 대한 여러종류의 구별 방법을 종합하면 主人山과 從山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 두종류의 산들의 형태와 특성을 山의 ①방향성 ②평면적형태 ③중심성 ④안정성 ⑤위계성 ⑥상호성 등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山의 方向性

山의 진행 방향은 명당을 기준할 때 명당을 向하여 직접 내려오는 수직적인 山과 이 명당과 主山을 보호하기 위하여 좌우로 진행되는 수평적인 山으로 구별된다. 앞에서 山의 開帳과 穿心の 구별에서 開帳은 水平的 방향이며 穿心은 垂直의 방향의 서로 상대적인 방향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山의 수평 혹은 수직의 형태는 從山과 主人山의 구별의 기준이 된다. ②山의 평면적 형태와 중심성 山의 형태를 평면적으로 분석하면 山의 길이가 폭에 비하여 길게 발전된 장방형 비율의 山과, 길이와 폭이 같은 정방형 비율의 山의 두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산의 형태적 구별에서 장방형의 山은 그 脈이 늘어져 있는 상태로서 정방형의 山은 脈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山으로서 從과 主의 구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장방형의 山은 脈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서 中心性이 弱하며 정방형의 山은 힘이 뭉쳐있는 관계로 中心性이 强하다. ③山의 安定性 主人山과 從山의 형태적 구별을 이들 山의 安定性으로 판단하면 主人山은 安定性이 强하며 從山은 弱하다. 이와같은 구별은 앞의 正龍과 傍龍의 구별에 있어서 正龍은 龍이 중앙에 위치하여 여러산의 호위를 받는 산이며 傍龍은 脈이 편벽되게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에 安定性이 작아서 安定性이 强한 正龍과 구별하게 된다. ④主從 산의 형태의 구별에도 賓主와 奴從이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여러산을 위계적으로 분석하면 主와 從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主·從의 各山은 그 상호성에 있어서도 主人山은 자주적인 기상이 있고 從山은 종속적인 氣를 갖는 山으로 각각 구별된다. (山의 형태에 의한 성격의 분류는 위에 설명한 山의 主從 이외에도 山의 貧富, 山의 淸濁, 山의 順狂, 雙胎峰 등의 여러가지로 구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